남편 위해 짓던 모스크…죽음 부른 단 한번의 입맞춤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4〉 비비하눔 사원

타슈켄트 = 윤영기 기자

비비하눔 사원은 아미르 티무르가 총애했던 왕비 비비하눔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사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에 있다. '티무르 양식'으로 불리는 푸른 빛이 도는 타일과 대리석으로 건물 내외부가 장식돼 있다.
/타슈켄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미르 티무르의 초상

칭기즈칸에 이은 유라시아 대륙의 마지막 정복자 아미르 티무르(Amir Temur·1336~1405).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 곳곳에 동상, 그의 이름을 딴 건물과 도로들이 있다.

중앙아시아 변방에서 태어난 그는 서유럽의 영웅이기도 했다. 그는 1402년 서유럽을 삼키려 했던 오스만 제국을 '앙카라(터키의 수도) 전투'에서 일축했다.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헨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오페라 '타메르나노(Tamerlano)'는 이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창작됐다.

칭기즈칸 시대 '푸른 군대'로 불렸던 전통의 기마병에 포병, 코끼리 부대까지 앞세웠던 티무르의 전투사는 신화에 가깝다. 페르시아, 중동, 인도, 러시아 원정에서 170일 동안 전투를 벌여 전승했고, 속전속결로 하루 평균 10만명을 도륙했다.

권력자에게 사랑 이야기가 없을 리 없다.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에는 티무르와 왕비의 비극적인 사랑의 전설을 간직한 사원이 있다. '비비 하눔'(Bibi Khanum) 모스크다. 비비하눔은 티무르의 여덟 왕비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사마르칸트 건축을 대표하는 이 모스크는 '티무르 양식'으로 불리는 푸른빛을 주조로 하고 있다. 돔형 지붕,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등이 에메랄드 빛이 도는 타일로 장식돼 있다. 티무르는 비비하눔을 이 건축물에서 가장 높은 부속 건물인 미나레트(minaret·신도가 올라가 무슬림에게 기도시간을 육성으로 알려주던 첨탑)에서 떨어뜨려 죽게했다.

사마르칸트 현지인들은 "티무르의 총애를 받던 비비하눔의 죽음은 '키스'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티무르가 인도 원정을 나갔을 때 비비하눔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를 지어 그에게 선물하려 했다. 건물 내부 마감재인 대리석 운반을 위해 인도에서 코끼리 95마리를 수입하고 공사현장을 매일 챙겼다.

> "겉모습 다른 달걀 깨보면 모두 같듯 여자도 같아요"
>
> "같은 잔도 한잔은 취하고 한 잔은 시원할 뿐이지요"

비비하눔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의 씨앗은 건축가의 짝사랑이었다. 비비하눔 건설에 종지부를 찍을 아치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는데도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애가 탄 비비하눔이 공정을 맡고 있는 젊은 페르시아 건축가를 채근했다.

왕비 연모하던 페르시아 건축가 공사 완성 조건으로 볼키스 요구 분노한 왕, 탑에서 왕비 떨어뜨려 이후 여성들에 차도르 착용 명령

당돌하게도 그는 "당신이 키스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비비하눔은 다양한 색깔이 칠해진 달걀을 그에게 보여주며 "겉모습이 다른 달걀을 깨보면 속이 모두 같듯이 여자도 같다"는 비유를 들어 타이른다.

건축가의 응수 또한 '걸작'이다. 그는 빈 잔 두개를 놓고 한 잔에 물을, 또 한 잔에는 술을 담은 뒤 "겉모습은 같아보여도 한 잔은 마시면 취하고, 또 한 잔은 시원할 뿐이지요. 사랑도 그런 겁니다."

때마침 인도원정을 끝낸 티무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비비하눔은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그에게 볼을 내주었다.

건축가의 열정적인 키스는 그녀의 볼에 깊은 키스 자국을 남겼고, 이를 알아챈 티무르는 배신에 치를 떨며 비비하눔의 목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그녀가 죽자 건축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달아났고, 티무르는 제국내 모든 여성들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도록 명령했다. 남자들이 여성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였다고 한다.

비비하눔의 슬픈 전설은 변주돼 전해지기도 한다. 그녀가 마지 못해 건축가에게 손등에 키스할 것을 허락했으나, 일방적으로 볼에 키스했다는 이야기, 페르시아 건축가가 새가 돼 하늘로 날아갔다는 설이다.

티무르가 사랑을 훔친 건축가에게 지하 모스크를 만들게 한 뒤 공사가 끝난 뒤 그 안에 가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비비하눔 이야기는 사실과 전설이 섞여 있다. 비비 하눔 정문 건너편에는 아담한 모스크가 하나 있다. 비비하눔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주인공은 몽골 칸의 딸 '사라이 물크 하눔'임이 밝혀졌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비비하눔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보다 강력한 비극적인 사랑의 전설에 매료된 사마르칸트 현지인들에게 비비하눔은 사랑과 배신을 증거하는 건물이었다.

/penfoot@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